中國의 이해를 돕는 책

'오늘의 중국'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정부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서해안 시대'라는 유행어와 함께 한때 큰 붐을 일으켰던 중국관련서적의 출간이 일단 주춤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北京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관심열이 재삼 높아지면서 서점의 점두에 중국관련서적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특히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하여 向後 한·중 관계의 개선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편인데, 다음에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책들을 선정, 간략한 해제와 함께 소개한다. '88년 이전의 관련서적은 본지 제13호(88년 2월 5일자)에 게재된 「출판에 불어온 中國大陸風」에서 다루어졌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5년후 중국(나카지마 미네오 지음 / 金平玉 옮김)

'잠자는 사자의 나라'로 형용돼왔던 중국의 앞날을 예측하고 있는 책으로 중국이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5년후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덩샤오핑 이후의 정치상황을 몇가지 불안요소를 들어 분석하고 개방을 향한 현재의 고무적인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行步를 걷는 중국사회의 모습을 엄격한 관리사회국가로 해석한다. 또한, 인구문제로 인한 앞날과 중국근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고찰하면서 농촌정책과 도시정책을 논했다. 이밖에 중국의 과학기술의 교육방향과 군사력의 확충문제, 대외정세 등에 대해서도 전망하고 있다.

정성출판사 / A5신 / 288면 / 3500원

中華人民共和國(宇野重昭 외 지음 / 이재선 옮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이 걸어온 역사적 자취와 오늘날 '개방과 개혁'으로 표현되는 혁신적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사회경제사적으로 기술한 책.

중국의 '개방과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본질을 중국내부의 사회발전 요소에서 찾고 있는 이 책은, 중국의 사회주의화 과정과 등소평체제로 확립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기반과 국내외의 정세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조명하면서 이후 실시되는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적 개조의 움직임을 통해 사회주의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과 탈文革을 둘러싼 내부의 항쟁도 낱낱이 밝히고 있다. 부록으로 중국관계자료, 연표, 문헌목록을 싣고 있다.

학민사 / A5신 / 406면 / 4500원

등소평(Uli 지음 / 한영택 옮김)

'중국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대개혁의 기수로서 11억 인구의 중국대륙을 이끌어온 '작은거인' 등소평의 評傳.

정치활동을 제외한 개인생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 없는 등소평에 대해, 독일의 언론인인 저자는 폭넓은 자료수집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그의 개인적 면모를 밝혀내고 있다.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등소평이 파리와 모스크바 유학을 거쳐 공산주의자로 변모해가는 과정, 모택동·강청·주은래 등과의 관계도 흥미롭게 소개되어 있다.

중국의 젊은 세대로부터 개혁의 걸림돌로 비판받고 있는 등소평의 진면목을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시사영어사 / A5신 / 394면 / 5000원

中國·中國人(李富光 지음)

1978년의 경제적 개방에서 비롯된, 변화하는 중국의 생생한 모습을「국제신문」기자인 저자가 종단취재한 뒤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이국정취에 젖은 나그네의 감상적인 기행문이라기보다 진실을 보도하는 날카로운 기자의 눈으로 포착된 중국대륙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관람, 풍물, 종교 등의 전모를 분석한 글로서 문명비판까지 겸하고 있다.

특히,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변지방의 생활과 풍물소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東亞 / A5신 / 266면 / 3800원

中國을 움직이는 사람들(김소중 지음)

중국의 핵심적인 인물이면서도 서로 묘한 대조를 이룬 화국봉과 등소평의 정치경력을 비교분석한 책.

저자는 화국봉을 '文革受益者'로, 등소평은 '文革受害者'로 규정하고, 두사람의 가정·사회적 배경을 비롯 공산당활동과 중국혁명에 대한 공헌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정치경력과 개성을 상세히 비교하고 있다.

특히, 화국봉과 등소평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감, 모택동사상에 대한 두사람의 미묘한 차이, 양파의 언론 및 이론투쟁을 살핌으로써, 중국공산당내의 갈등을 상세히 조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정치현상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중국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종로서적 / A5신 / 250면 / 3500원

中國의 최고지도층(김정계 지음)

法治보다 人治가 중국의 오랜 정치전통이며 또 그것이 오늘날의 중국의 정치문화로 고착화되었다는 관점에서 최고 권력층의 출신배경과 인맥의 가닥을 추적, 중국정치를 이해하고자 한 책.

전체 2부로 나뉘어졌는데, 제1부에서는 중국 권력구조의 기본골격인 당·국가 및 軍조직을 분석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당·정·군 및 군중조직의 주요인사 5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개인적 프로필과 인맥관계 및 특징을 분석, 이들이 중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 있다.

평민사 / A5신 / 320면 / 5800원

격변하는 新中國(張元鎬 지음)

자본주의의 물결을 조심스럽게 수용하면서 특유의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실험하고 있는 중국의 당면과제를 고찰한 책.

미국 미주리대학 신문학과 교수로서 중국언론기관과의 기술교류를 위해 수차례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중국의 움직임과 고민을 정치·경제·사회·교육·언론으로 나누어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40여년의 평등주의와 과다평등의 병통을 고쳐보려는 신중국의 고민과 그 속에서 왕성한 생존의지를 보여주는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사회의 파노라마가 감동적이다.

시사영어사 / A5신 / 264면 / 3800원

천안문광장(劉亞洲 지음 / 박재연 옮김)

중국혁명 2세대로 前국가주석 李先念의 사위이기도 한 작가의 정치소설. 모택동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핵심인물이었던 주은래, 유소기, 임표, 왕홍문, 강청 등의 권력암투와 사생활, 여성편력 등을 정치가의 밀실을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쓴 이색작품으로 문화대혁명을 소시민적 관점이 아닌 당대 권력층의 시선을 빌려 형상화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일급자료를 기본으로 해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함께 연결시켜 파악함으로써 최초로 모택동을 깊이 있게 조명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작가 자신은 이 책에 대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인물들을 그려낸 논픽션"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사 / A5 / 320면 / 5000원

비지니스맨을 위한 중국경제(曺瑛煥 지음)

중국과 경제관계를 가지려고 하거나 그 분야에 대해 알고자 하는 비지니스맨을 위한 중국경제안내서.

국내에서 중국붐이 일어나면서 특히 경제부문은 장미빛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저자는 사회주의이념을 수호하는 중국의 개방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중국시장에 도전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사회와 문화, 정치형태, 법률제도 등을 폭넓게 조망하는 한편 기업체제와 구조, 중국식 상거래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韓國經濟新聞社 / B5변형 / 226면 / 3000원

중국과 소련(모리카즈코 지음 / 김하림 옮김)

사회주의국가의 모델로서 다양한 연구대상이 되어온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역사적 과정 속에서 파악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 강화발전론의 입장에서 해석한 책.

중·소관계 30년사에 나타난 대립과 화해의 내재적 의미를 살피고 있는 이 책은, 그것이 미친 국제적인 영향을 비롯해 앞으로의 관계전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중소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새로운 중소화해 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개혁 및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 부활의

대형서점에 마련된 중국관련도서 코너.

주요관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민서각 / A5신 / 224면 / 3500원

中國社會主義經濟論(薛暮橋 지음 / 吳鎭龍 옮김)

孫冶方과 더불어 현대중국의 경제발전이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저자의 중국경제문제 연구서.

1980년 이전의 중국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중국사회주의의 특성을 소개하고, '중국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중국경제를 중국인의 시각에서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1979년 초판발행 당시에 이미 600만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책의 번역본은 1983년의 개정판을 텍스트로 삼았다.

한국경제신문사 / A5신 / 318면 / 7000원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李德彬 지음, 梁必承 외 옮김)

1949년에서 1985년에 이르는 현대중국의 경제발전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서술한 책.

80년대에 불기 시작한 개방의 바람에 힘입어 풍부한 미공개자료를 인용한 점이 돋보이며,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을 축으로 삼으면서 여타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

중국대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씌어진 책이지만, 이제까지의 이 방면 저서들에서 볼 수 없었던 실증적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설서에 그치지 않는 미덕을 보인다.

교보문고 / A5신 / 366면 / 5000원

現代中國論(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 엮음)

현대중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측면을 고찰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책.

이 책은 중국인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있는 중화사상과 오늘의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의 역사와 본질을 설명하고 아울러 중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내외 경제를 상술하면서 중국사회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살피고 있는데, 작금의 중국실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사건과 정책 등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연표를 수록했다.

희성출판사 / A5신 / 342면 / 7000원

중국사회주의개혁의 진로(서석홍 엮음

1978년말 이후 광범하게 추진되어온 중국경제개혁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그리고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 국내의 논문 17편과 편역자의 관련논문 2편을 보태어 엮은 책.

1부와 2부는 중국 경제개혁 기초이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관련되는 글과 중국 경제개혁 기초이론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을 해설하는 논문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3부에는 위의 양이론을 기초로 한 중국의 구체적인 경제체제 개혁방안과 관련한 논문이, 4부 '보론'에는 개혁의 진전과 함께 중국이론계에 광범하게 이루어진 사회주의에 대한 재인식작업과 관련된 논문을 싣고 있다.

풀빛 / A5신 / 350면 / 5000원

요즈음 중국인들(장신신 외 저 / 김태홍 편역)

두사람의 중국인 기자와 작가가 중국전역을 돌며 중국인의 생활상을 심층취재, 오늘을 사는 중국 보통 사람들의 삶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책.

중국인의 삶이 진솔하고도 대담한 필치로 그려진 이책은 문화혁명 · 학생운동 · 숙청 · 경제개혁 등 현대중국의 역사적 사건들이 민초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고스란히 증언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중국인들의 현실적 삶을 그들이 그린 '자화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우아당 / A5신 / 340면 / 3500원

중국을 해부한다(하세가와 게이따로 지음 / 김판순 옮김)

중국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능력이 없는 일본인의 비뚤어진 중국상을 지적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중국인의 굴절된 심리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

중국대륙의 어제와 오늘을 넓고,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는데, 인민해방군 · 중국농촌산업실태 · 중소관계 · 홍콩반환문제 · 중국과 북한의 관계 등과 관련한 북경정권의 속사정을 파헤치면서 중국정치의 앞날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열풍'의 허와 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중국경제의 올바른 평가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춘추각 / A5신 / 216면 / 3000원

馬仲可의 중국(馬仲可 지음)

중국에서 태어나 45년간을 그곳에서 살면서 공산체제를 온몸으로 겪은 동포교수의 '체험으로 통찰한 中國論'.

한국교포로서는 최초로 하얼빈공대의 교수로 재직하다 미국 칼텍대학객원교수로 파견되었던 저자는 이후 줄곧 중국민주화운동에 참여해왔는데, 이 책은 만필 – 수상의 형식을 빌려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 · 인민들의 경제생활 · 당관료주의의 부정과 부폐 등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만필 – 수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단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심오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馬仲可는 신분보호상 쓰고 있는 필명.

조선일보사 / A5신 / 326면 / 3600원

中國全史 전백찬 엮음 / 이진복 외 옮김)

1983년에 북경의 인민출판사가 발간한 「중국사강요」를 번역한 책.

중국당국이 고등학교 문과 중국사교재를 출간키로 하고 전백찬 등에 편찬을 맡겨 22년만에 완성한 이 책은 중국에서 출간된 공식적인 교육용도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인 스스로의 눈으로 본 중국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끄는데, 기왕에 출간된 여타의 개설서에서는 보기 드믄 위구르, 흉노, 여진, 몽고, 조선 등 소수민족사에도 상당한 양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학민사 / A5신 / 480면 / 6000원

新中國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立花大平 지음)

'85년에서부터 '87년까지 일종의 고용외국인을 가리키는 '외국인 전문가'로 「베이찡주보」에 근무했던 저자의 '체험론적 중국론'.

50년대의 중국을 '황금시대'라고 일컫는 저자는 60~70년대를 '납덩어리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80년대의 중국은 '황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자는 그 합금중에서 21세기를 겨냥하는 강도 높은 합금이 생겨날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어제까지의 지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내부로부터 파헤친 책이다.

예본 / A5신 / 230면 / 3400원

— 이권우 기자